

예 시 답 안 (사회계)

[문제 I]

위의 제시문들은 진리와 윤리를 판단하는 절대주의 혹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담고 있다. 제시문 [가]와 [라]는 좋고 나쁨,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입장이다. 한편 제시문 [나], [다], [마]는 개인, 시대, 상황에 따라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.

[가]에 따르면 동굴 밖 태양처럼 선의 이데아는 참된 세계와 진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. [라]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법칙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.

한편 [나]에서 각 부족은 자신의 관습이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다른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. [다]는 각각의 장점을 지닌 형형색색의 감자 종자들에 비유해 다양한 문명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. [마]는 Magritte의 그림을 해석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,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.

[문제 II]

제시문 [바]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이다. 밀러는 ‘약한 사해주의’라는 개념을 통해 민족국가에 기초한 시민적 책임과 지구적 차원의 접근이 대립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.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[가], [나]는 각각 비판받을 수 있다.

제시문 [가]는 감각을 통해 인지한 세계와 진리는 허상일 뿐이며, 참된 세계와 진리는 구체성을 초월한 보편적 이데아의 세계라고 보고 있다. 그러나 보편성은 구체적 시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만 발견된다. 민족성에 기초한 사회정의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[바]의 견해처럼, 보편성이나 절대성은 구체적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벗어나서 추구될 수 없는 것이다.

반면에 제시문 [나]는 개별 공동체의 관습을 절대시하고 타자의 관습을 용납하지 않는 기계적인 상대주의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. 개별 공동체는 자신들의 관습이 최선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습을 문제시하지 않는다. 하지만 구체적 관습은 보편적 시각을 확보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. 인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, 한편으로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왔기 때문이다. 절대와 상대, 구체와 추상, 특수와 보편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.

[문제 III]

①을 선택한 사람들을 집합 A, ②을 선택한 사람들의 집단을 집합 B, 그리고 ③을 선택한 사람들을 집합 C 라고 하자. 이때 ①과 ②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$n(A \cup B) - n(A \cap B) = 12$, ①과 ③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며 $n(A \cup C) - n(A \cap C) = 15$ 이다. 그리고 ②와 ③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 사람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$n(B \cup C) - n(B \cap C) = 13$ 이다. 그리고 $n(A \cup B \cup C) = 60$ 이다.

위 식에서 $n(A \cup B) - n(A \cap B) + n(A \cup C) - n(A \cap C) + n(B \cup C) - n(B \cap C) = 40$ 임을 알 수 있다. 이 식을 $n(A \cup B) = n(A) + n(B) - n(A \cap B)$ 을 이용하면, $2[n(A) + n(B) + n(C) - n(A \cap B) - n(A \cap C) - n(B \cap C)] = 40$ 임을 알 수 있다. 그리고 $n(A \cup B \cup C) = n(A) + n(B) + n(C) - n(A \cap B) - n(A \cap C) - n(B \cap C) + n(A \cap B \cap C) = 60$ 이므로, $n(A \cap B \cap C) = 60 - 20 = 40$ 이다.

따라서 ①, ② 그리고 ③을 모두 선택한 사람의 수는 40명임을 알 수 있다. 이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반수 이상이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이 설문의 결과는 제시문 [나]의 주장인 상대방의 풍속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